



광주청년센터는 오는 11월20일까지 광주시민회관 특설무대에서 '청춘 스테이지 in 시민회관'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2일 무대에 오른 '랑데부' 모습.

“청년음악인들 시민회관으로 모여라”

‘시민회관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무대.’

지난 1971년 광주시 남구 구동에 처음 문을 연 광주시민회관은 결혼식 등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공간이자 만화영화를 상영하고, 가수들의 공연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한 때는 철거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청년크리에이터들의 창업공간 'FoRest971'로 새롭게 문을 열고 야외 오픈무대가 꾸려지는 등 특별한 공간으로 재오픈했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다.

최근 광주시민회관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의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청년센터(센터장 백희정)는 지난 22일 광주시민회관 특설무대에서 '청춘 스테이지 in 시민회관'을 시작했다.

'청춘 스테이지 in 시민회관'은 광주청년센터가 광주시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2021 청년뮤지션 공연활동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무대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광주 지역의 공연예술분야 종사 청년들에게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연무대와 공연비를 지원하고, 공연을 즐기는 청년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11월20일까지 5주간 매주 금요일 낮 12시~오후 1시, 오후 7~9시 두차례와 토요일 오후 6~9시에 진행되며 밴드공연, 비보잉, 국악, 현악,

‘청춘 스테이지 in 시민회관’

11월 20일까지 매주 금·토

윈디캣·여울 등 37팀 무대

미술, 마임 등의 무대로 꾸며진다.

광주청년센터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공연에 참여할 문화·예술 분야 활동 청년 및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해 심사를 거쳐 60여 개 공연을 펼칠 총 30여 팀을 선정했다.

먼저 지난 22일 열린 첫 공연에는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들며 관객들을 사로잡은 '랑데부',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k-pop을 선보인 강서령을 비롯해 위대한공연단 위성옥의 마술공연, 퓨전어쿠스틱밴드 데이앤나잇의 공연 등이 펼쳐졌다. 23일에는 스카이브릿지 재즈밴드, 창작곡 악그룹 그루, 밴드 녹터널 등이 무대를 꾸몄다.

앞으로 남은 공연에는 재즈를 기반으로 팝, 힙합, 라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재즈밴드 'SOOF', 자유롭고 개성넘치는 곡으로 사랑받는 밴드 '우물안개구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결성된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그런지록, 펑크록, 모던록 등으로 시민과 만나는 '윈디캣' 등이 참여한다.



‘윈디캣’

이밖에 Drum on change, Encore, Floaty, stander, STARRY, The Clazz Quintet, 꽃가람, 나리, 느낌, 라온, 민속타악연구회, 박한울 Sextet, 봉훈, 솜니움, 싱앤싱어즈, 앙코르목관오중주, 에시드브레이크즈, 여울, 오하이(OHI)밴드, 이어픽(Ear-Pick), 콰르텟 포엠티, 퍼니히니, 한밴드 등 37팀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스케줄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193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일상 속 작은 심포 ‘케렌시아’

이인성 초대전, 11월 6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케렌시아’는 투우 경기장에서 투우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소가 잠시 쉬는 곳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로 애정, 애착 혹은 귀소본능을 뜻하는 단어이며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마음을 쉴 수 있는 대피소나 아지트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인성 케렌시아 특별초대전’이 오는 11월6일까지 무등산 자락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감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인상적인 기존 스타일의 작품 이외에도 완성형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벼운 제스처로 작업한 작품 등 28점을 선보인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작가 역시 보통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모습과 함께 자신과 가까운 주변에 눈길을 보내고 마음을 주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작업에 변화를 시도해 본 그는 유화적이고 주변적 요소들을 소재로 끌어들이어 초창기 작업하던 마음으로 돌아가 붓을 들었다.

전시작은 작가 자신에게는 앞으로의 꾸준한 여정을 위한 휴식의 단계이며 관람객들에게 일상 속 작은 침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작품들이다. 작품 ‘케렌시아’는 여백의 미를 살린 화면이 위안을 주는 작품이며 쓸쓸한 표정의 투우사를 주인공으로 한 ‘투우사’나 생각에 잠긴 표정이 인상적인 ‘자화상’, 작업실에서 고민하는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작업실에서 앉아 있을 때’



‘투우사’

면’ 등이 눈길을 끈다.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2017 빛’ 하정웅 청년작가, 조선대 올해의 작가상, 광주미술상,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 시립미술관 북경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도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 꽃, 나무, 산 ‘상상찬가’

홍찬석 초대전, 11월 14일까지 소암미술관

서양화가 홍찬석 작가의 작품은 동심이 가득하다. 마치 아이로 돌아간 듯,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풍경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 진다.

소암미술관(광주시 남구 중앙로 83-1)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지역 교류전시 일환으로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찬석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상상찬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홍작가는 새, 꽃, 나무, 산 등 친숙한 자연을 소재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회화작품 23점을 전시한다.

홍작가는 자유분방하고 즐거움이 담긴 한국적 민화를 바탕으로 평면회화의 구성과 표현에 대해 끊임없이 실험하며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의 화풍에선 우리에게 친숙한 마이산의 풍경도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며 ‘Feeling love’ 연작은 단순화 시킨 나무와 꽃, 구름, 나비가 어우러진 모습과 화사하고 밝은 색감 덕에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떠오르게 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홍작가는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미술총감독을 역임



‘Feeling love’

했으며 제 1 회 성남아트페어 최우수작가상을 수상했다. 전라감영복원 벽화(전주) 작업 등에 참여했으며 전북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전남대 리걸클리닉 ‘성평등 법률강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김미경)은26일부터 총 2회에 걸쳐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과 함께 성평등 법률강좌를 개최한다.

첫 시간은 26일 오후 2시이며, 조영희 변호사가 ‘가정폭력 관련법령의 이해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11월 2일 오후 2시에는 송지영 변호사가 ‘데이트 폭력과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 외에도 여성 대상 범죄 관련 법률 자문 및 상담이 진행된다. 피해를 당하고도 선뜻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강좌는 광주여성가족재단 3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2-670-056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소정 작곡 ‘나의 예술 가곡 이야기’

2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작곡 활동을 해온 작곡가 김소정(사진)이 그동안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했다.

‘김소정 작곡 발표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나의 예술 가곡 이야기(The story of my artistic songs)’를 주제로 열린다.

김소정은 전남여고와 전남대 사범대 음악교육과, 경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불가리아 국립소피아 아카데미와 이태리 가스파레 스포네티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다. 이후 전남대, 광주교육대 등에서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현재 평화통일합창단 단장(지휘자)과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코로나 시대, 밝고 아름다운 예술가곡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으며, 지역의 명산 무등산과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곡부터 남북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노래까지 총 16곡들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김지열 시인의 시 ‘사랑의 아침’, ‘자주빛 목련꽃’,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등에 곡을 붙인 노래를 비롯해 이창아 ‘내 가슴의 고요’, 유평선 ‘무등산 장원봉’, 김화정 ‘봄나무에 기대어’, ‘녹차 연가’, 서정주 ‘산록’ 등의 시에 선율을 더한 곡들을 들려준다. 공연의 피날레는 김 씨가 지난해 5·18 40주년을 맞아 박기순 열사를 기리며 작사·작곡한 ‘5월, 그날의 불꽃’으로 장식한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이소희·김선희, 바리톤 이하석, 테너 윤병길 등이 오며, 이지는이 피아노 반주로 함께한다. 전석초대. 문의 010-3648-575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호남학 어떻게 할 것인가’

28일 천득염 원장 발표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제1회 ‘호남학콜로키움’을 오는 28일 오후 4시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그동안 ‘광주학콜로키움’이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호남학이라는 사과의 장을 마련하고 대중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호남학콜로키움은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이 ‘호남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천 원장은 호남의 사상과 역사, 호남문화의 정체성 등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과 호남과 호남문화, 호남인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수행한 과업 등을 중심으로 ‘호남학’ 담론을 함께 풀어보며 개선의 길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광주학콜로키움과 함께 2022년부터는 매월 호남학과 광주학에 대한 콜로키움이 공동으로 운영된다. 호남학콜로키움은 전근대를, 광주학콜로키움은 근현대를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문의 062-603-961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40년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